

광주에 사랑제일교회 교인 수십명... '코로나 공포' 밀려온다

“광화문집회 참석” 24명 자진 신고... 정확한 숫자 파악 안 돼
전남, 진도까지 뿔려... 조용한 전파·3차 대유행 우려 목소리

코로나19 공포가 또다시 광주·전남을 뒤덮고 있다. <관련기사 2.3.6면> 광주에선 유흥업소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도 누적되고 있으며, 전남은 청정지역으로 꼽혔던 진도군까지 뿔렸다. 특히 대규모 확진자가 나온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서울 광화문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광주·전남지역민의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어 지역 내 ‘조용한 전파’와 함께 ‘3차 대유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특성상 대규모 감염사례는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고, 의료시스템이 붕괴할 수도 있다”면서 “지역민 개개인이 마스크 쓰기과 손 씻기, 외출 삼가 등 기본적인 방역을 지키는 것 만이 코로나19를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개인 위생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18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광주에선 유흥업소 관련 접촉자 2명과 부부 사이인 70대와 60대 여성, 해외입국자 2명 등 모두 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역 내 누적 확진자수도 245명으로 늘었다.

이들 중 부부의 감염원은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

광주에서는 이들 부부를 포함해 13번, 161번, 168번, 220번 확진자의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추가 감염이 있었던 192번, 209번, 유흥주점발 최초 확진

자인 217번도 감염 경로가 불분명하다. 지난 12일 이후 이어지고 있는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도 이날 2명이 추가돼 19명으로 늘었다.

지난 6-7월 방문판매발 2차 유행을 경험했던 광주는 최근 유흥업소에 이어 서울 사랑제일교회, 서울 광복절 집회를 매개로 한 3차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확진자들이 다녀간 유흥업소 19곳 중 상당수는 방문자 출입기록이 불분명하고, 유흥시설 특성상 이용객들이 신분을 숨기려는 성향이 강해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유흥업소 출입자를 대상으로 ‘의명 보장’을 약속하는 등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있으며, 이날 현재 확진자를 제외한 1442건의 검체에 대한 진단검사를 의뢰했다. 이 중 1265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177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유흥주점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는 419명이다.

광주시는 유흥업소와는 별개로 확진자 457명이 나온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지역내 감염자 발생 여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사랑제일교회를 다니는 광주지역 교인은 21명이며 이 가운데 19명은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2명은 검사를 거부하거나 연락두절 상태였으나, 경찰 협조를 통해 조만간 검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다고 자발적으로 신고한 24명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집회 참석자들에 대해 자진신고 외엔 파악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지역내 ‘조용한 전파’ 가능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지난 3일 1단계로 전환한 광주시는 신중한 모습이다.

전남도 초비상이다. 지난 17일 밤 진도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데다, 이 환자와 최근 식사한 주민 1명이 이날 오후 6시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역사회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당 마을은 주 출입로가 봉쇄되는 등 사실상 코호트 격리에 준하는 조치가 취해진 상태다.

전남 43번 확진자인 진도 거주 60대는 양식업 종사자로 지난 12일 제주도에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경기 김포시 70번 확진자에게 전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기내에서 확진자 접촉 이후 지난 16일 밤 김포시로부터 확진자 접촉 통보를 받기까지 5일간 43번 환자가 무증상 상태에서 진도에서 지인, 외국인 노동자 등 70명 이상을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은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날 오후 8시 현재 43번 확진자와 최근 식사를 함께한 진도 주민(70대 남성) 1명이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접촉자 71명 가운데 아내를 포함한 나머지 접촉자 70명이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다만 전남 43번 확진자의 드러나지 않은 접촉자 존재 가능성이 있어 추가 감염자 발생 여지가 있다.

전남도는 또 증대본과 수도권 자치단



18일 오전 전남 진도군의 유일한 출입로인 진도대교 초입에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발열 체크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 순복음교회 교인과 항공기 안에서 접촉한 60대 주민이 진도지역 첫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된 데 따른 조치다. <진도군 제공>

체, 광주시로부터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양천구 되새김교회, 광복절 집회 관련 60명, 용인 우리제일교회, 파주 스타벅스, 양평군 마을잔치 관련 3명, 광주 상무지구 유흥주점 관련 69명 등 모두 132명의 명단을 확보해 검사 중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집중호우 피해 복구·광산구 특별재난지역 요건 충족”

광주시, “동구는 유동적”

집중호우로 물난리를 겪은 광주가 구, 동 단위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북구와 광산구의 피해는 지방자치단체별 지정 기준을 초과했다. 다만 동구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입력액과 조사단 인정액이 차이를 보여 피해 조사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광주시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한 북구와 광산구도 중앙재난 당국의 심의를 통과해야만 최종 지정된다.

지난 16일 0시 현재 광주는 시설피해 7033건, 피해액 156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125억원, 서구 70억원, 남구 102억원, 북구 740억원, 광산구 527억원 등이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으로 큰 피해를 본 지자체에 국비를 지원해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선포된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해준다.

주택, 농·어업시설 등 생계수단에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 혜택을 준다. 광주시는 구 전체가 지정되지 않더라도 피해가 큰 동별로 지정받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호우 피해를 계기로 항구적 복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지정되지 않은 지역도 상당 부분 정부 지원이 가능한 만큼 조속하고 완전한 복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문 대통령 “코로나 확산으로 학교 전면 등교 차질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수도권에서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조속한 전면 등교가 우리의 목표였는데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사랑과 감사의 66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 ~ 2020]
가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창덕여자중학교를 방문해 ‘그린 스마트스쿨’ 현장을 점검한 뒤 열린 전국 시도 교육감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수도권 지역 확진자가 급증해 방역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2학기 등교 방식을 두고 정부의 감염병 위기 단계에 따른 대책을 준용하겠다고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1 단계가 유지되면 2학기에도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 이내에서 유지해달라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상당수 학교는 학력 격차 확

대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해 2학기 매일 등교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최근 일부 교회 교인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 서울·경기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급이 2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이 지역 학교의 2학기 등교 인원이 3분의 1로 제한되는 등 전면 등교 추진이 쉽지 않게 됐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학교 현장에서 다시 한번 긴장의 끈을 다잡아주셔야겠다”면서 “2학기를 맞아 준비와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최선을 다해 학교 현장의 노

력을 뒷받침하고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우리는 함께 코로나를 이겨내면서 코로나 이후의 교육을 준비해야 한다”며 “상생과 포용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함께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이 가장 먼저 적용돼야 할 현장 중 하나가 학교”라고 설명했다. 그린 스마트스쿨은 한국판 뉴딜의 두 축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학교 현장에서 실현시키는 것으로 2025년까지 예산 18조5000억 원을 투입해 학교 건물 2835동을 ‘디지털+친환경’ 기반의 미래형 학교 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IOPE
RETINOL EXPERT
RETINOL 0.1%
NEW

2weeks
고함양 고도도 레티놀은 눈가 및
눈 주름 등을 단 2주 만에 개선
IOPE LAB

슈퍼레티놀

단 2주 만에 주름잡다

| 아이오페 레티놀 엑스퍼트 0.1% |

주름을 위한 당신의 노력을,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이제, 주름보다 강한 슈퍼레티놀로
확실한 주름 개선 효과를 느껴보세요

레티놀은 아이오페

IOPE

*인 40~50세 성인 여성 14명 (대상 2019.09.16~10.17) 2주간(10주) 사용 후 조사 결과
고객상담실 080-023-5454 | www.iope.com